

재즈를 듣다 18

유럽 레이블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QR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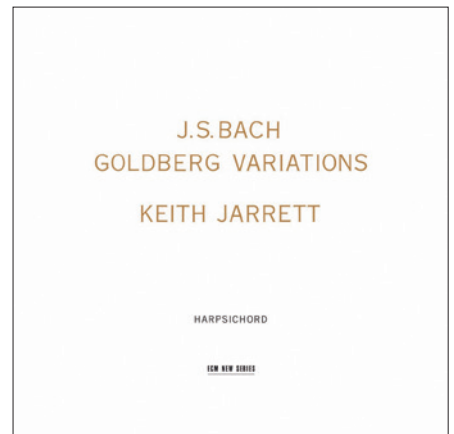


유럽 레이블
플레이리스트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유럽은 미국에서 탄생한 재즈를 받아들이는 데 두 가지 큰 장벽이 있었다. 첫째, 실제 연주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녹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음질이 열악한 음반으로만 듣고 모방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음량이 큰 드럼은 소리가 튀지 않도록 세트를 간소화하고 작게 두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유럽 사람들은 원래 드럼을 그렇게 연주하는 걸로 오해했다고 한다. 둘째, 두 차례 큰 전쟁을 직접 겪었다. 그 결과 1, 2차 세계 대전 사이 대공황 시절에 유행했던 스윙 재즈가 유럽의 첫 번째 주류가 된 듯하다. 종전 후 유럽을 방문한 재즈 연주자 중 초기 재즈 연주자로는 시드니 베세가 거의 유일하고 대부분은 콜맨 호킨스, 듀크 엘링턴, 베니 카터 등 스윙 재즈 연주자였다. 최고의 유럽 재즈 스타인 장고 라인하르트 역시 스윙 재즈 기타 연주자다. 미국에서 밥(Bop)이 처음 등장했을 때 유럽은 전쟁 중이었고, 당연히 최신 뉴스를 잘 모를 수밖에 없었다. 1948년 파리에서 있었던 재즈 페스티벌에 디지 길레스피가 등장해 처음 밥을 연주했고 청중은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스윙에서 밥으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겪은 미국과 달리 갑자기 새로운 음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했을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스윙 지지파와 혁신적인 밥 옹호파로 나뉘어 대립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처럼 유럽의 재즈는 미국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약간의 오해와 시차를 두고서 나름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다. 또한, 고전음악의 본고장으로서 능숙한 연주자가 많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다.

수십 년 세월이 흐르며 미국과 다른 유럽 재즈만의 독특한 감성은 몇몇 레이블을 통해 재즈 팬의 심금을 울린다. 그중 독일 회사인 이씨엠(ECM, Edition of Contemporary Music)은 가장 먼저 언급해 마땅한 대표적인 유럽 레이블이다. 재즈를 비롯해 뉴에이지와 클래식을 망라한 ECM은 소속 음악가들의 뛰어난 연주 실력뿐만 아니라 프로듀서인 만프레드 아이허(Manfred Eicher)가 주도한 획기적인 녹음 기술로 인해 북유럽을 연상케 하는 맑고 투명한 음향을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레이블의 특별한 점은 미국인 연주자를 데려와 작업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유럽 냄새’가 난다는 점이다.

키스 자렛(Keith Jarrett)은 이씨엠을 대표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다. 그는 194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났다. 1965년에 아트 블레키가 이끄는 ‘재즈 메신저스’에서 피아니스트로 데뷔하였고, 곧이어 ‘찰스 로이드 쿼텟’에서 활동, 찰리 헤이든(베이스)과 폴 모티앙(드럼)과의 트리오, 마일즈 데이비스 밴드에서 활동하다 1971년에 자신만의 ‘아메리칸 쿼텟’을 결성해 5년간 이어갔다. 상당히 특이한 경력으로는 1968년에 ‘붕괴의 복구(= Restoration Ruin)’라는 포크락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씨엠과의 작업으로 탄생한 첫 번째 음반은 1971년의 ‘너와 마주하다(Facing You)’라는 독주곡이다. 1975년엔 그의 최고 히트 음반 중 하나인 ‘쾰른 콘서트(Köln Concert)’를 발표했다. 또 베이스 연주자 게리 피콕(Gary Peacock), 드러머 잭 디조넷(Jack DeJohnette)과 함께 트리오를 결성해 1983년에 ‘스탠다드 볼륨 1(Standards, Volume 1)’, ‘스탠다드 볼륨 2’, ‘변화(= Changes)’ 등 세 장의 음반을 발표했다. 키스 자렛의 음반은 비할 바 없이 훌륭하긴 하지만 한가지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점이 있다. 때때로 연주를 하는 중에 자꾸 ‘깡깡’ 댄다. 일종의 무아지경에서 나오는 반응으로 보이는데 이를 좋게 보



키스 자렛의 음반들

는 분도 있지만, 감상에 거슬린다는 평이 엇갈린다. 1989년엔 J.S.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 (= Goldberg Variations)’을 발표했다. 재즈가 아니라 악보대로 연주한 바로크 음악이다. 하프시코드 연주인데 음질이 매우 좋다. 아마 마이크를 하프시코드 안에 설치하고 연주를 한 듯 하다. 그는 트리오뿐만 아니라 콰텟 연주 음반도 남겼다. 그중 색소폰 연주자인 얀 가바렉(Jan Garbarek)과 함께 1977년 발표한 ‘나의 노래(= My Song)’가 큰 인기를 얻었다.

얀 가바렉은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다. 주요 악기는 테너 또는 소프라노 색소폰이다. 비브라토가 거의 없는 맑고 단단해 보이는 소리가 이씨엠과 궁합이 매우 잘 맞은 듯하다. 1970년에 발표한 ‘아프릭 페퍼버드(Afric Pepperbird)’가 이씨엠에서의 첫 음반이다. 1973년 보보 스텐손(Bobo Stenson)과 공동 작업한 ‘위치-타이-토(Witchi-tai-to)’에선 키스 자렛 트리오 때와는 느낌이 다른 연주를 들려준다. 1992년에 발표한 ‘12개의 달(Twelve Moons)’은 한 단편 영화를 위해 만든 음반이다. 사실 그의 음악 세계는 재즈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특히 영국의 남성 사중창단인 힐리어드 앙상블(Hilliard Ensemble)과 함께 작업한 ‘오피시움(Officium)’은 중세유럽음악에 색소폰을 덧입힌 것으로, 장르를 초월해 대단히 신선한 느낌을 줬다. 아울러 이 음반이야말로 진정 이씨엠 사운드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얀 가바렉의 음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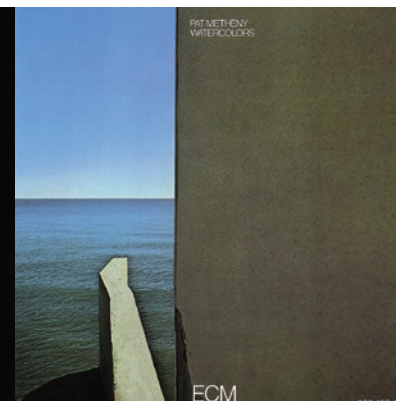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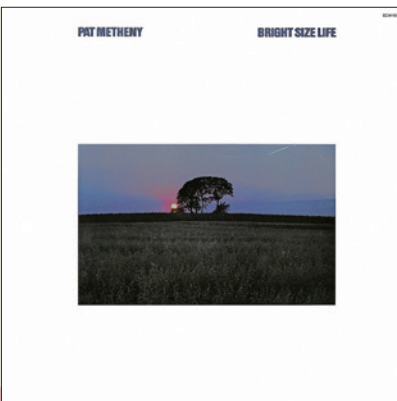
칼라 블레이(Carla Bley)는 미국 캘리포니아 태생으로 10대 때 무작정 뉴욕으로 와서 재즈 클럽을 전전하며 현장에서 음악을 익힌 (좋은 의미에서) ‘근본이 없는’ 명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다. 원래 성은 보그(Borg, SF 드라마 ‘스타트렉’에 나오는 기계 종족 ‘보그’와 스펠이 같다)였으나 캐나다 태생의 피아니스트인 폴 블레이(Paul Bley)와 결혼하며 칼라 블레이가 됐다. 한국에선 1987년 발표한 ‘6중주단(= Sextet)’이란 음반에 수록된 ‘잔디밭(= Lawns)’이란 곡이 재즈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처음 주목을 받았다. 이 음반은 이씨엠 자회사인 와트(WATT)에서 발표됐다. 1982년에 역시 와트에서 발표한 ‘라이브!(Live!)’는 음악도 음악이거니와 음반 표지가 특유의 헤어스타일과 외모를 가장 잘 연출했다고 본다. 그녀는 1936년생으로 현재 80세가 넘도록 장수하고 계신다. 2020년에 ‘삶은 계속된다(= Life Goes on)’란 음반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매우 좋다.



칼라 블레이의 음반들



팻 메스니(Pat Metheny)는 이씨엠이 배출한 재즈 스타라 해도 될 것 같다. 다른 연주자와 달리 데뷔작인 ‘눈부신 일상(= Bright Size Life)’부터 최대 히트작인 ‘나와 함께 떠날까?(= Are you going with me?)’가 수록된 ‘출구(= Offramp)’를 비롯해, ‘수채화(= Watercolors)’, ‘뉴 쇼토쿼(= New Chautauqua)’, ‘첫 번째 동그라미(= First Circle)’ 등 초기 걸작을 모두 이씨엠에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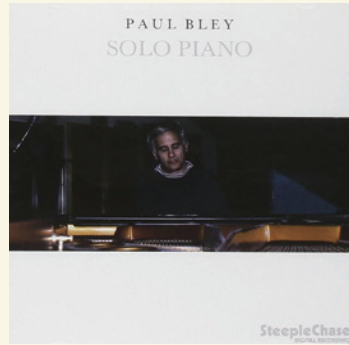
팻 메스니의 음반들

유럽고전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콘트라퐁크트(Kontrapunkt)란 레이블을 친숙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스티플체이스(SteepleChase)는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재즈 음악 전문이다. 이씨엠과는 또 다른 느낌의 유럽 레이블이다. 듀크 조단(Duke Jordan)이 유럽에 정착해 1974년 발표한 ‘덴마크로 날아감(= Flight to Denmark)’이라는 걸작이 이 레이블을 통해 나왔다.

칼라 블레이의 첫 번째 배우자였던 폴 블레이(Paul Bley)는 1988년 이 레이블에서 ‘솔로 피아노(Solo Piano)’란 음반을 발표했다. 그는 원래 돈 체리, 오넷 콜먼 등과 함께 프리재즈를 연주했었으나 이 음반에서는 정갈하면서도 따뜻한 연주를 들려준다. 1973년엔 덴마크 태생의 베이스 연주자로서 유럽 재즈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인 닐 페데르센(Niels-Henning Ørsted Pedersen)과 함께 ‘폴 블레이/NHØP(Paul Bley/NHØP)’란 듀엣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듀크 조던의 '덴마크로 날아감'



폴 블레이의 음반



아르네 돔네루스의 음반



트리오 토이킷의 음반들



유로피안 재즈 트리오의 '노르웨이 숲'

프로프리우스(Proprius)는 연주 자체보다는 뛰어난 고음질을 추구하는 레이블이다. 1977년에 '전당포에서 재즈(= Jazz At The Pawnshop)'란 음반을 발표했다. 1976년 12월 14~15일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탬펜(= Jazzpuben Stampen)이란 재즈 클럽에서 행한 멀티 세션 녹음이다. 음질뿐만 아니라 놀라운 현장감으로 재즈 팬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게 히트하며 2001년에 '전당포에서 재즈 2'도 나왔다. 이 음반에서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연주한 인물은 스웨덴 태생의 아르네 돔네루스(Arne Domnérus)다. 1988년 같은 레이블에서 '안티폰 블루스(Antiphone Blues)'란 음반을 발표했는데, 오디오파일(Audiophile) 사이에선 오디오 기기 음질 테스트용 음반으로 유명했다.

미국 연주자가 유럽에서 음반을 발표한 경우와 반대로 유럽 연주자가 미국 레이블에서 음반을 발표한 경우도 있다. 트리오 토이킷(Trio Töykeät)은 핀란드에서 2006년까지 활동했던 재즈 삼중주단이다. 조금 가벼우면서 재밌는 연주를 들려줬다. 데뷔작인 '나날(= Päivää)'은 스웨덴 레이블인 소넷(Sonet)에서 나왔지만 재발매 음반은 미국 레이블인 엠알씨(EmArcy)에서 나왔다. 활동 후반기에 발표한 '일어나(= Wake)'와 '탐페레에서의 하룻밤(= One night in Tampere)'은 블루 노트(Blue Note)에서 나왔지만, 누구도 그들의 연주를 들으며 미국 재즈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다.

유로피안 재즈 트리오(European Jazz Trio)는 이름만 봐선 유럽 단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마타 마코토(木全信)란 프로듀서에 의해 일본에서 기획된 삼중주단이다. 세련되면서 어렵지 않은, 다시 말해 일본 사람 취향에 맞춰 컨셉을 잡은 후 적절한 연주자를 물색해 음반을 만들었다. 1989년 데뷔 음반은 비틀즈 노래 제목이면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제목이기도 한 '노르웨이 숲(= Norwegian Wood)'이 었다. 재즈 팬 사이에선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단체다. 편안하고 듣기 좋다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상업주의에 편승한 유행가 모음집이란 비평도 함께 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www.amazon.com, www.amazon.co.jp, music.apple.com